

2. 육체-영혼의 문제 (Das Leib-Seele-Problem)

인간의 본질과 본질구조에 대한 물음은 정신사적으로 육체-영혼의 문제 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 둘은 무엇을 뜻하며,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가. 문제의 역사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왔다(가령, 희랍의 오르페우스에서 유래하는 영육이원론이나 동양의 혼백사상). 이러한 확신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기본체험으로부터 연유한다. 살아있는 육체와 죽은 자의 시체(신체) 사이에는 본질적인 구별이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육체를 능가하는 생명 그 자체로서 조건지우고 작용하는 어떤 무엇(생명원리)이 존재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으로부터 영혼의 문제가 제기된다. 진리에 대한 의식과 인식, 선에 대한 추구와 의지, 미에 대한 체험과 조형, 참된 사랑과 윤리적 행위, 몰아적인 헌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선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일회적인 인격 가치 등,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실재’는 물론 ‘유기체의 생명’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물질적인 실재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없다. 그 대신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무엇으로서 실재의 더 높은 차원에 속한다.

이러한 실재의 해명을 위해서 먼저 ‘영혼’(Seele)과 ‘정신’(Geist)의 개념적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판의 내용, 1976년). **영혼(Psyche, anima)**은 특별히 인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생명원리를 뜻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들로서의 식물이나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도 말한다. 영혼은 여기서 ‘신체적 생명의 내적인 원리’이다. 그에 비해서 **정신(Nous, mens, spiritus)**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더 높고, 비물질적이며, 따라서 신체나 물질을 능가하는 존재원리와 작용원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순수한 정신”(spiritus purus)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간 안에서는 정신은 동시에 영혼이다**. 즉,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원리는 동시에 인간적 신체를 살아 있게 하며 영혼을 부여하는 것, 곧 전체의 신체적 생명의 생명원리이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인간 안에 있는 **“정신적 영혼”(anima spiritualis oder intellectualis)**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안에서 이미 영혼의 이중적 기능이 표현되고 있다: **영혼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생명의 원리**이다.

나. 희랍의 사상

(1) **플라톤의 사상**: 영혼과 신체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의 본성과 의미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이래로 철학자들의 견해는 현저하게 갈라져 있다. 즉 서로 대립되는 두 해결책은 결국은 이 두 철학자에게로 소급될 수가 있다.

먼저 플라톤 사상을 살펴보면, 그는 영혼을 비물질적인 것으로 파악했던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 등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명확하게 정립시키지 못했다. 플라톤에 이르러서야 이 사상은 명확하게 표명이 된다. 피타고라스학파는 오르페우스교¹⁾와 밀접

1) **오르페우스교**는 기원전 6세기의 고대 그리스에서 전파되었던 종교이다.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종교

한 관련을 가진다. 피타고라스학파는 바로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을 받아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유**를 전개했다. 물질적인 것과 물질에 대해 초월적인 것을 날카롭게 나눈 집단이 바로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학파이다. 이 이원론적 사유는 나중에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이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교 사상 정립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혼’은 비물질적인 ‘천상’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왔음에 틀림이 없다고 플라톤은 생각했다. 영혼이 순수한 관념을 접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천상이다. 한편 영혼은 육신 속에 한시적으로 갇혀 있게 된다. 개인의 의식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인 ‘전생’에서 일찍이 보았던 것을 계속해서 ‘상기’함으로써 발달하게 된다. 외적 감각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념들을 상기하도록 돕는 자극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특정한 정화 과정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리적인 대상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애초에 그것이 있었던 천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이렇게 플라톤은 ‘영혼불멸설’을 주장했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다. 영혼은 이 세상의 삶 이전에 이미 영원한 정신세계인 이데아(idea, eidos)계에 존재해 있었으나,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의 육체와 결합하면서 이데아의 세계를 잊어버리게 되고, 현실 세계에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영혼이 세 부분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정신의 내면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공통의 경험으로부터 **영혼의 3분법**을 이끌어내어 영혼을 이성(理性), 기개(氣概), 욕망(慾望)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 영혼의 내적 작용이 세 가지 행동 양상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의하여 증명된다. ‘이성’은 삶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정신 능력이다. 이성 행동을 위해 하나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은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뒤바뀔 수도 있다. ‘기개’는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다. 기개의 힘은 이들 감각적 갈망 때문에 이성 쪽으로도, 욕망 쪽으로도 끌려갈 수 있다. ‘욕망’은 육체의 사물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다. 이런 영혼의 요소들 중에 기개와 욕망은 비이성적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기개와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인간 생활에 참된 선(善)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영혼과 육체를 ‘형상’(形相 Form)과 ‘질료’(質料 Matter)로 보고자 했다[질료-형상론].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육체는 영혼이 그것에 고유한 형상과 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내용물이다. 따라서 그는 육체와 영혼의 단일성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인간의 형상(즉 영혼)이 어떤 고유한 실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 속에 존재하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육체에 의존적이다. 그러나 영혼은 특정한 지력(知力)을 사용하는 작용에 있어서 육체로부터 독립적이다. 따라서 인간의 형상인 영혼은 육체보다 더 우위라는 것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도 영혼과 육체에 관해서 플라톤의 이원론을 약간 수정했을 뿐이고, 근본적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우선 **식물적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은 신진대사를 하고 성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동물적 영혼**으로서 감각 작용을 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영혼이다. 마지막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영혼**이 있다. 식물들은 식물적 영혼 하나만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식물적 영혼에 감각-운동적 영혼을 곁들여 가지고

로 그 첫 번째 사제가 오르페우스이다. 이 종교는 영혼승배, 영혼불멸, 영혼윤회, 부활신앙, 금욕사상 등, 영과 육의 **이원론 사상**을 전파했다.

있고, 인간은 그 두 개의 영혼에 다시 이성적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생각은 그 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성서적-그리스도교적 가르침

성서에서 인간은 **살아 있는 단일체**로 이해되고 있다. 히랍어 ‘psyche’로 번역되는 구약의 단어 ‘nephesch’는 육체와 육체적 생명으로부터 구별되는 영혼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 또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는 생명 원리로서의 영혼이라는 원래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곧 영혼이다. 동시에 인간은 바사르(basar), 곧 몸이다. 몸도 따라서 곧 영혼이다. 인간은 영혼으로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1) **구약성서**: 영혼의 불사불멸 그리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비로소 후대에 이르러 히랍의 영향으로 내세에 대한 믿음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2) **신약성서**: 구약의 사고방식과 관습을 고수하여 영혼을 생명 또는 생명력으로 이해했으며, 육체와 육체적 생명에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육체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령, “육신(soma)은 죽여도 영혼(psyche)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마태 10, 28). 영혼은 다른 곳에서는 생명으로 번역되고 있다. “제 목숨(psyche)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입니다.”(마태 16, 25). 생명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곧 현세의 생명과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다. 이 참된 생명은 영혼과 육체의 본질 단일성 안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마지막 완성을 통해 발생한다. 하지만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3) **바오로 사도**: 육체(sarx)와 영(pneuma)의 대립에 대해서 말한다. 육체는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을 수반하는 타락과 범죄 본성을 의미하며, 영은 새 생명의 원리, 구원된 생명의 원리, 은총의 생명 원리이고, 이 원리가 최종적으로는 인간에게 선사되었고, 인간 안에 살고 작용하는 신적인 영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육체와 영 사이에 내재하는 이러한 대립은 인간의 신체와 영혼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신적인 영(pneuma)은 영혼(nephesch)인 인간 안에 움직이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육체와 영혼의 구별이 암시되고는 있다. 히랍의 사고가 의심할 여지없이 그리스도교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러기에 성서의 진술 안에는 비록 비-반성적으로 전제되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원성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4) **아우구스티누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영혼과 육체는 두 개의 별도의 실체(Substanzen)를 형성하며, 이 실체들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작용단일성을 이룬다고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wesenhaft), 존재적으로(seinsmäßig) 통일성을 이루지는 않는다.

(5)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과 육체의 실체적 단일성을 수용하였다. 그는 ‘영혼이 육체에 형상을 부여한다’(anima forma corporis)라는 이론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정신적 영혼의 초월성, 육체적 죽음 이후의 영혼의 불사불멸성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는 이론이었다. 그래서 토마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본질형상(Wesensform)’과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본질형상’을 구분한다. 후자만이 육체의 생명원리가 될 수 있으며,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한다. 인간의 정신적 영혼은 생명원리의 기능을 갖기는 하나, 그 자체로 존재한다. 즉 그것은 물질적 육체 없이도 실존이 가능하며, 물질적인 육체 안에서는 순수하게 정신적인, 즉 물질적 기체(Substrat)로부터 내적으로 독립된 행위의 능력을 가진다. **영혼의 정신적 본질은 비록 육체와 실제적인 단일성을 이루기는 하지만, 육체적 생명의 기능을 능가한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토마스의 견해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관철될 수 있었다. 보기: 라테란 공의회: “**지성적 영혼은 참으로 그 자체 그리고 본질적으로 육체에 형상을 부여한다.**”

라. 근대철학의 심신이원론

서구의 근대철학에 이르면 영혼(psyche)/정신(nous)개념은 ‘mens(정신)’, ‘mind(마음)’ ‘consciousness(의식)’ 같은 개념들로 대체된다. 이제는 ‘영혼/정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 대신 ‘마음/의식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가 주요 흐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즉, 일정한 실체로서의 영혼/정신이 아니라, 인식론적 능력 내지 기능으로서의 마음/의식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서구 근대철학이 형이상학보다는 인식론 중심으로 전개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영혼/정신 개념으로부터 마음/의식 개념으로의 이행인 것이다. ‘실체’로서, 더구나 때로는 초월적 실체로서의 영혼/정신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능력으로서의 마음/의식이 논의 대상이 된 것이다.

(1) **데카르트의 이원론**: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원론을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고 갔다. 인간의 육체(연장적 실체: 기계론적 인과율)와 영혼(사유하는 실체: 자유의지)은 완전히 상이한 존재의 질서에 속하므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으며,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 “**송과선**”이라는 가설은 어떤 설득력도 줄 수 없었다.

(2) **기회원인론(ocasionalism)**: 말브랑슈(N. Malebranche)와 킬링크스(A. Geulincx).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고수하면서 ‘**모든 작용은 오로지 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함으로써 상호작용의 모순을 나름대로 극복하려 하였다. 사물은 오로지 신의 직접적인 작용을 위한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혼에 대해, 영혼은 육체에 대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며, 오직 신만이 필요한 작용을 일으키는데, 신이 일으키는 이 작용이 현상적으로는 상호작용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3)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 이는 기회원인론의 계승이다. **사물 자체는 작용을 일으키며**, 더구나 작용은 모든 사물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와 기회원인론과 구별된다. 그러나 단자의 적극적인 자기 발전에 필요한 내적인 작용만이 존재할 뿐이지, 타자에 대한 사물의 외적인 작용은 없다. 왜냐하면 “**단자는 창문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에 대한 영혼의 작용 혹은 그 반대도 없다.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신으로부터 선천적으로 그렇게 질서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4) **스피노자의 심신이원론**: 신적인 실체의 단일성과 두 개의 속성들(연장과 사유)에 대한 이

론을 전개했다. 이는 흔히 *심신평행론(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상호작용이나 인과관계가 없다)*이라 명명되고 있다. 정신의 질서와 육체의 질서 사이의 *평행(대응)*은 동일한 정신과 육체의 동일성, 곧 하나이고 같은 실체의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애매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로부터 *유심론적 일원론(버클리)*과 *유물론적 일원론(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이 등장한다.

마. 영혼과 육체 (요약)

영혼과 신체 양자의 관련성은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철학적 사상의 전통의 경우 영혼과 육체의 문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의 지평* 안에서 제기되어 왔다. 즉 살아 있는 “육체”(Leib)는 비록 그것이 동일한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신체”(Körper)와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영화시키고 물질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생명력은 생명의 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오로지 육체와 영혼만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즉 물리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 활력적인) 물질과 생명원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 *생명원리*로부터 심리적-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생물학적인 생명이 유래한다. 그것을 사람들은 *영혼* 혹은 *형상원리*”(Formprinzip)라고 지칭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들고 있는 예는, 만일 눈이 독자적으로 살아 있는 존재라면 시력은 눈의 영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눈은 신체적인 기관으로서 영혼의 육체가 될 것이라고 한다(De anima II, 2, 412 b). 눈에 시력이 주어진다면, 눈은 살아 있는 기능을 지닌 기관이 되듯이, 인간 역시 자신의 살아 있는 단일성과 전체성에 있어서 오로지 영혼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시킨다.

*최근의 심리학에서의 심신이론*에 따르면, 정신 작용(의지의 결단)은 육체의 움직임을 야기하며 그 반대로 타당하다. 즉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의지의 결단이나, 영적인 자극, 혹은 무의식적이고 억압적인 콤플렉스가 질병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질병이 특정한 정신적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다. 만일 영혼과 육체를 이러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고전적인 철학(질료-형상론)*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된다. 영혼은 단지 육체적 생명의 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현상과 체험의 총체개념을 의미한다. 육체는 단지 영혼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생명이 없는 질료적인 토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재로서 정신적인 생명의 영역과는 구별되는 살아 있는 인간의 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신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한 *질료-형상 모델*은 적합한 것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바로 *상호작용(Wechselwirkung)*의 가능성이 분명히 대두된다. 만일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찰해 온 인간의 본질구성요인, 곧 ‘형상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려 한다면, *형상원리(영혼)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의 상호작용이 인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질 것이다.*

3. 육체의 양면성

정신적 영혼이 질료성의 매개체를 통해서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질료적 육체 안에서 자신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살아 있는 육체의 실재는 영혼이 동화되고 육화된 실재이다.